

현장 보고

분단선 현장 속의 전쟁·평화와 생태

김재한 (한림대)

오늘날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외국 사례 중 하나는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독일은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고 전쟁 위기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공한 통일·평화 현장으로 설명되며, 반면 한국은 실패의 현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선입관보다는, 통일 및 평화의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쟁 vs 평화, 통일 vs 분단, 개발 vs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독일과 한반도 현장을 살펴본다.

I. 전쟁과 독일의 통일·분단

분단과 통일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처럼, 선행과 후행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통일이 선행되지 않았으면 분단이라고 잘 불리지 않는다. 고대 로마와 중세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했다는 인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19세기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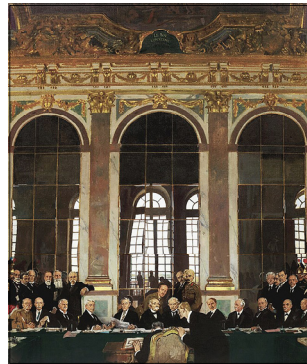
리아 통일과 독일 통일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통일은 대체로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 통일 독일의 첫 사례로 언급되는 신성로마제국 자체가 여러 전쟁을 통해 성립된 정치체였다. 근대적 의미의 통일 사례로 여겨지는 1871년 독일 통일에서는 전쟁 승리가 통일의 주된 동인이었다. 1862년 덴마크와의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1870년 프랑스와의 전쟁은 흔히 제1차 독일통일전쟁, 제2차 독일통일전쟁, 제3차 독일통일전쟁으로 각각 불릴 정도로 독일 통일의 직접적 과정이었다. 그래서 전쟁을 통일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반대로 전쟁이 분단의 원인이 되기도 함은 독일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은 전후 독일 분단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스탈린 소련 의장의 3국 정상은 독일을 분할 점령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7월 1일 연합군



1871년 1월 28일 프랑스가 자랑하던 베르사유궁전 거울홀에서 치르진 통일 독일제국 선포식. 당시 독일 통일이 독일에 영광, 인접국 프랑스에는 치욕이었다. 출처: 베르너(Anton von Werner) 그림, 위키미디어.



1919년 6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 강화조약 체결 모습. 독일에 가혹했던 조약 체결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 패전, 독일 분단 등으로 이어졌다. 출처: 오르펜(William Orpen) 그림, 위키미디어.

은 독일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구역안을 발표하였다. 본래 프랑스는 소련의 반대로 독일 점령국 지위를 얻지 못하다가 미국과 영국의 점령구역 일부를 이양받는 방식으로 독일 점령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던 점령구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영토로, 소련이 관리하던 점령구역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영토로 귀속됨으로써, 패전국 점령 관리 목적의 분할선이 패전국 분단선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중반 독일의 분단은 전쟁, 구체적으로 패전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독일 분단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불리던 냉전에 의해 지속되었다. 오늘날까지 보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동서독 분단선 현장은 서독 바이에른(Bayern)주와 동독 작센(Sachsen)주 사이의 뫼들라로이트(Mödlareuth)이다. 분단선 상의 마을 대다수는 동독 정부에 의해 건물이 철거되고 동독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되었는데, 50여 명의 작은 마을 뫼들라로이트는 국제여론이 주시하던 곳이라 주민의 강제 이주가 실천되지 못했다. 1952년 뫼들라로이트 마을에 목제 담이 세워졌고, 1966년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뀌었다. 이 분단선으로 인해 80m 거리에 있는 장벽 건너편 같은 마을로 가려면 80km의 긴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었다.



리틀 베를린으로 불리는 뫼들라로이트 마을. 통일 이후 마을(오른쪽 사진)에는 분단 시절 마을 모습의 큰 사진(왼쪽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서울: 아마존의 나비, 2015), 86쪽.

II. 독일 통일과 생태평화

동서독 분단선은 독일 내에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경계선이었다. 확장해서 보자면,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과 서유럽의 자유 진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었다. 이른바 철의 장막(Iron Curtain)이었다. 철의 장막 위치는 약간 다르게 주장되기도 한다. 유고슬라비아를 공산 진영에 포함한 철의 장막 위치도 있고, 비교적 독립적인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를 공산 진영에서 제외한 철의 장막 위치도 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지원으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였고, 1990년 7월 1일 독일은 동서독을 나누는 철의 장막을 공식적으로 철폐하였다.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동서독 분단선 지역 다수가 국립공원 또는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종(種) 보전을 중시하는 독일 환경자연단체 분트(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는 동서독 분단선을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즉 그린벨트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



하르츠(Harz) 산악지대 조르게(Sorge) 그뤼네스반트에 설치된 안내판.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4쪽.



그뤼네스반트 도로가에 설치된 유럽그린벨트(철의 장막) 안내판.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5쪽.



동독 국경수비대의 감시 초소로 활용되던 한슈타인성(Burg Hanstein)에서 본 동서독 경계선. 한슈타인성에 가까운 누런 들판들 사이로 동서독 경계선이 지나갔다. 인근 동서독 주민 모두 높은 성곽의 한슈타인성을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성곽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출처: 김규환·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147쪽.

진하였다. 독일뿐 아니라 멀리는 핀란드까지 약 15,000km 길이의 철의 장막을 생태환경보전의 유럽그린벨트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서 유럽 간 냉전의 최전선이 오늘날에는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생태환경 벨트로 기능하고 있다.

동서독 분단선 대부분이 주(州)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독 경계선은 구릉지대가 적지 않고 인구도 조밀하지 않아,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보전되었다. 분단 시절, 동서독 분단선 주변은 도로가 폐쇄되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았다. 동서독으로 분단되기 전에는 약 40개의 철로, 약 30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약 140개의 지방도로 등이 동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작은 도로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은 연결로가 있었다. 그러다가 분단 이후 동독 정부가 여러 연결로를 차단함



조르게 그뤼네스반트에서 북쪽으로 촬영한 사진. 왼쪽 철책선이 동서독 경계선이었고, 가운데는 동독의 완충지대와 감시탑 시설이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97쪽.



조르게 그뤼네스반트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사진. 오른쪽 산림은 서독지역이었고, 왼쪽 산림과 가운데 완충지대는 동독지역이었다.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24쪽.

에 따라 10개의 도로(고속도로 4개 포함), 8개의 철로, 2개의 운하, 3개의 항공로만이 동서독 경계선을 통과했다. 동서 베를린 간에는 8개의 연결로가 허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결 차단은 생태계의 보전 또는 복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좁게는 20m, 넓게는 2km 정도 떨어져 담을 다시 세웠다. 동독 내벽의 바깥쪽도 동독의 관할 구역이라 보수정비가 가능하였고, 동독 경비대가 동독 내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발포하더라도 총알이 서독 땅까지 잘 가지 않게 되었다. 또 동독 정부는 동서독 경계선 바로 동쪽 지역에 수목을 제거하여 50~200m 폭의 완충지대(순찰로 포함)를 조성하고 감시탑을 세워 동독인의 탈출을 감시하였다. 동독 국경수비대 대원을 포함해서 아무도 동독을 탈출할 수 없도록 동서독 경계선과 동독 내벽의 사이 공간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에 달리 동서독 경계선의 서쪽에는 요새, 순찰로, 지뢰 등이 거의 없었다. “위험! 국경지역!(Achtung! Zonengrenze!)” 또는 “정지! 여기는 국경지역임(Halt! Hier Zonengrenze)”과 같은 경고판만 설치되었다. 독어 및

영어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은 있었으나 경계선까지 접근하는 데에 물리적 장애물은 거의 없었다.

분단 시절의 동서독 분단선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같은 무장된 군대가 서로 대치하지는 않았다. 헤센(Hessen)주와 튀링겐(Thüringen)주 사이의 포인트알파(Point Alpha)처럼 나토 동맹군과 바르샤바 동맹군이 서로 대치하던 경계선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통일 이후에는 교류 및 왕복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생태적으로도 연결이 보전되고 있다. 오늘날 동서독 경계선 현장은 그뤼네스반트 또는 생태 벨트로 치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분단 시절 동서독 간의 그뤼네스반트 생태협력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Ⅲ. 한반도 분단선의 전쟁과 생태

동서독 분단처럼, 한반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다. 반면 패전국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북위 38도선 기준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38선이라는 분단선은 1950년 전쟁 발발로 사라졌고, 오늘날 기념비로만 존재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분단선은 38선에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로 대체되었다. 군사분계선을 지도가 아닌 현장에서 관찰하기는 어렵다. 임진강 강변의 제1호 표식물부터 시작하여 동해안의 제1,292호 표식물까지 약 200m 간격의 표식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 대신, 현장에서 관찰되는 분단선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책인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남북한계선



연천, 인제, 양양의 38선 기념비.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69쪽.

이다.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은 여러 겹의 철책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여 현장에서 관찰되기 어렵다. 남방한계선 철책 역시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정확히 2km 떨어져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 보기 어려움도 물론이다.

분단은 전쟁으로 고착되기도 한다. 3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무력 충돌은 바로 종식되지 못했고 오랜 정전 상태로 분단이 일상화되었다. 분단선 현장에도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비무장 의무에 위반되는 무장된 군사적 대치가 이어졌다.

군사적 대치는 분단선 지역의 인간 출입을 제한했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복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남북한 분단선 지



최동단의 제1,292호 군사분계선 표식판 말뚝.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80쪽.



북한강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표식판.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82쪽.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의 생태환경.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100, 89, 60쪽.

역의 생태 보전 또는 복원을 방해할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사적 대치가 생태환경을 무조건 보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현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뿐 아니라, 비무장지대 안의 생태환경이 비무장지대 바깥의 생태환경보다 덜 풍성함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남북 양측이 시계(視界)와 사계(射界)를 확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의 수목을 거의 정기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판 철의 장막은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이다. 중국에 인접한 자유 진영 국가와 중국 간의 장벽을 중국의 상징인 대나무에 비유해 부른 명칭이다. 동서독 경계선이 철의 장막에 포함되었듯이,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죽의 장막에 포함되었다.

철의 장막과 유사한 명칭의 장소가 남북한 분단선에 있는데, 바로 철의 삼각지(iron Triangle)이다. 전쟁 당시 평강, 철원, 김화로 이어지는 북측 삼각 축선이 공략하기 어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날 철의 삼각지는 세계적인 생태환경 현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의 월동지이기 때문이다. 인간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생태환경 가치가 무조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두루미 개체들



철의 삼각지에서 탐조되는 쇠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군집. 출처: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230~231쪽.

이 철원에 월동하게 된 계기는 철원평야의 농사방식이 기계식으로 바뀌어 추수 후 낱알이 논밭에 많이 남게 되면서였다. 두루미뿐 아니라 독수리 역시 현지 마을의 인위적인 먹이 공급에 따라 월동 개체 수가 늘어났다. 인간의 거주와 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 것이다.

철새의 생태적 가치는 특정 지역뿐 아니라 서식지 등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냉전 시대 철의 장막이 오늘날 유럽 생태 벨트로 바뀌듯이, 철의 삼각지 역시 생태네트워크로 확장될 수도 있다. 철새 네트워크와 같은 남북 네트워크뿐 아니라 만리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 동해 북방한계선, 독도, 일본 열도 등으로 연결되는 동서 네트워크도 구축될 수 있다.

※※※

전쟁·평화와 통일·분단 간의 관계는 다양하다. 독일 통일의 현장만 봐도, 전쟁과 통일이 함께하기도 했고, 반대로 평화와 통일이 함께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 한반도 분단은 전쟁 종식으로 시작되었다가 새로운

전쟁으로 고착화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축 그리고 분단과 통일의 축은 연관되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과 평화를 함께 얻을 수도 있고, 그중 하나만 얻을 수도 있으며, 둘 다를 잃을 수도 있다. 어떤 통일, 어떤 평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전쟁·평화와 개발·보전 간의 관계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순행의 관계와 역행의 관계가 뒤섞여 있어, 생태평화의 개념으로 그 인과관계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¹⁾ 통일·분단과 생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전쟁·평화, 분단·통일, 개발·보전의 논의에 필요한 것은 선입관 및 진영논리의 감상적 탁상공론보다, 현장적 사실 및 논리적 인과론에 기반한 성찰이다.

¹⁾ Chae-Han Kim and Bruce Bueno de Mesquita,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A DMZ Eco-Peace Park"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Winter 2015), pp. 539-557.

【참고문헌】

김규현·김재한, 『비무장지대를 넘는 길』, 서울: 아마존의 나비, 2015.

Chae-Han Kim and Bruce Bueno de Mesquita, "Ecological Security and the Promotion of Peace: A DMZ Eco-Peace Park"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4 (Winter 2015), pp. 539-557.

베르너(Anton von Werner) 그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ton_von_Werner_-_Kaiserproklamation_in_Versailles_1871.jpg>.

오르펜(William Orpen) 그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illiam_Orpen_-_The_Signing_of_Peace_in_the_Hall_of_Mirrors.jpg>.

김재한 (Chae-Han Kim)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과 국내외 출판사에서 100종 이상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중 12종의 도서가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에 게재한 논문은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논문 가운데 최다인용으로 일송논문상을 수상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National Fellow, 교육부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